

영광 낙월도, 꿀벌 섬으로

전남농기원, 28일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개소
여왕벌 키워 농가에 공급...도·농촌진흥청 24억 투입

전남 영광군 낙월도에 ‘꿀벌 섬’이 조성된다. 기
후 변화로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거나 폐사하
는 등 ‘꿀벌 실종 사태’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직
접 꿀벌을 키워 농가에 보급하는 ‘기지’ 역할을 하
기 위해서다.

15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기술원 곤충잠
업연구소는 오는 28일 영광 낙월도에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마련, 개소식을 갖는다.

다른 꿀벌이 서식하지 않는 섬에 양봉사와 관리
동 등을 갖춘 증식장(386㎡)을 조성한 뒤 농촌진
흥청이 육종한 원종을 받아 질병과 환경 변화에 대
한 저항성이 높은 슈퍼 여왕벌을 키워내 농가에 빠
르게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진흥청과 전남도

가 24억원을 투입했다.

특정 품종의 우수한 유전 형질을 보존하기 용이
한 섬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
충남(보령 삼시도), 전남(낙월도), 경북 예천, 전
북(군산 연도), 진도 등에 조성된다.

기후변화로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가 반복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와 수분을 돕는 꿀벌
등 꽃가루 매개 곤충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도움
이 될 것이라는 게 곤충잠업연구소 설명이다.

낙월도에서 키워내는 여왕벌은 신품종인 ‘젤리
킹’으로 올해 100마리를 키워낸 뒤 총 500마리까
지 보급을 늘려나간다는 게 농기원 계획이다. 젤
리킹은 재래종 꿀벌 대비 로열젤리 함량(10-HDA)

이 31.3%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 위기에 따라 꿀벌 실종 사태는 봄마다 반복
되는 실정으로, 올 2월 기준 전남지역 양봉농가
(3063호)가 키우는 30만 8000봉군의 14%가 돌아
오지 못하거나 각종 질병으로 실종되는 등의 피해
를 입은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했다.

2023년만 해도 10만 1000봉군에 달했던 실종
사태는 지난해 4만 6000봉군으로 다소 줄었지만
매년 반복되는 형편이다.

작물로 보면 딸기(100%), 수박·참외(93%), 토
마토(84%), 멜론(72%), 사과(20%) 등 27개 작
물이 꿀벌, 호박벌 등 수정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
을 정도로 중요하다.

정원진 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관계자는
“꿀벌 증식장이 국내 양봉산업 활성화와 전국 2만
6686농가의 11%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전남 양봉농
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잊지 않을게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둔 15일 광주시 서구청 앞 광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상징하는 노란 바람개비 조형물이 조성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유족회 “세월호 유가족과 슬픔 나누겠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세월호 참사 11주
를 맞아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겠다는 취지의 성
명서를 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세
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같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온 만큼 더욱 진심으로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4월 16일의 비극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
에 선명히 남아 있다”며 “다시는 이 땅에 무책임과
방치로 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게

된다”고 했다.

단체는 “우리 5·18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
을 너무 잘 안다. 45년 전, 국가의 이름으로 죽을조
차 확인받지 못한 채 오늘날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해
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행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선택’ 사라지고 ‘통합’ 응시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보니

고난도 문항 영역별 단독 출제
데이터 분석 요하는 문제 늘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
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수험생이 선택
없이 동일한 과목에 응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
징이다.

이 중에서도 사회·과학탐구영역의 경우 현
재 선택과목 총 17개 중 최대 2개를 고르는 방
식에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모든 응시
자가 치르는 것으로 바뀌면서 가장 관심이 집
중됐다.

1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8
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사회·과학 예시문항 문
제지를 평가원과 수능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9월 수능 통합사회·과학
총 26개 예시문항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수
능과 동일한 형식으로 문제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어와 수학 문항 수는 각 45개(시험시간
80분), 30개(100분)로 현행과 같이 유지된
다. 사회·과학은 과목당 20문항(30분)에서
25문항(40분)으로 변경됐다.

통합사회의 경우 문항별 구성을 보면 윤리 6
개, 일반사회 8개, 지리 7개, 통합사회 4개 문
항으로 출제됐다.

종로학원은 “각 영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문항
이 다수 출제된 가운데 3번(지리+일반사회),
12번(일반사회+지리), 13번(일반사회+지
리), 23번(지리+역사)은 영역 간 유기적 결합
을 추구하는 통합형으로 나왔다”고 분석했다.

내용적인 면에선 사회과학과 도덕과를 구성하
는 영역별 유의미한 교육적 내용과 소재들이
주요 주제로 나왔다.

기본개념을 확인하는 문항은 주로 1.5점, 통
합적 사고력과 2개 이상의 자료를 해석해야 하
는 문항은 2.5점을 배점했다.

통합과학은 교과와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문
제들로 구성됐다.
종로학원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거나 단

순 공식 암기로 풀이하는 문항이 사라지고 깊
이 있는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요하는 문항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
다”고 평가했다. 또 “고난도 문항은 통합형이
아닌 영역별 단독 문항 위주로 출제됐으며 데
이터 분석이 필요한 자료 형태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배점은 기존의 2점과 3점이 1.5점, 2점, 2.5
점으로 세분화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과 고유의 성격
을 반영한 문항 출제에 대비해 교육 과정 내 기
본 개념 학습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사회
의 경우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한 2개 과목 이상이
융합된 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
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과학은 스킵 위주의 문
제 풀이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개념 이해를 바
탕으로 각 영역의 개념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
는 학습을 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자료가 제시
됐을 때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어와 수학은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평이한 수준에서 예시문항이 나왔다.
“화법과 언어”는 현행 수능에서 크게 바뀌는
것 없이 기본 개념학습에 충실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됐고, ‘독서와 작문’, ‘문학’도 현
수능의 범위와 난이도를 유지했다.

수학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동일한 현재의 출제경향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입시업계는 봤다.

그러나 2023학년도 수능부터 폐지되지 않던
‘빈칸추론’ 문제가 제시돼 해당 유형에 대한 학
습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평가원은 “수학영역의 출제 범위는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며 위계성과 연계성
이 강한 교과 특성상 출제 범위 이외 공통 과목
인 ‘공통수학I’, ‘공통수학II’의 내용은 간접적
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2028학년도 수능 수학 문항 배열
은 2021학년도 수학 I·II 형과 유사하다”며 “다
만 2028학년도 수능은 통합형이어서 난도가
2021학년도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시 찾아온 봄...광주·전남 평년기온 회복

꽃샘추위로 얼어붙었던 날씨가 차차 풀리면서
광주·전남에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광주
·전남의 기온은 평년(최저 5~10도, 최고 17~21
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에 머무르다가,
낮 최고기온은 19~26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기상청은 차가운 고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 제

주도 남쪽 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
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기온이 오를 전망
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
역에서 순간 풍속이 초속 15m를 넘는 강풍이 지
속적으로 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으
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주의하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료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도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도 모범기업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